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7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9.04~2025.09.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오영훈, 토론회, 기초자치단체, 지하수, 축제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글로번, 청년, 일본
지역·사회	밀입국(보트/중국인/중국), 병원, 갈등, 대통령, 학생

※ 분석 기간 : 25.09.04.~25.09.1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 무산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협력 강화 -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
	토론회	- 중산간 개발과 새로운 관광 모델 -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기초자치 단체	- 2026년 7월 도입 공식 무산 - 계획 무산의 주요 배경과 원인 - 도입 무산에 따른 후속 과제
	지하수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재추진 - '공수' 원칙을 둘러싼 찬반 갈등 - 14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란
	축제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추진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축제 개최 - 제주시, 원도심 축제 활성화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음식 관심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관광시장 질서 확립 위한 단속 강화
	여행	- 가을 제주, 맞춤형 여행 콘텐츠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최선호지 제주 - 추석 황금연휴 제주행 교통 대란
	글로벌	-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개최 - 제주 농산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제주서 성료
	청년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 - 8월 고용시장, 20대 취업자 증가 - 청년 주도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최
	일본	- 제주-일본 간 하늘길 확대 - 일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 일본인의 제주 미식 높은 관심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밀입국(보트/중국인/중국)	- 중국인 고무보트 집단 밀입국 - 제주 내 중국인 연루 범죄 발생
	병원	- 제주대학교병원의 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의 경영난 심화 - 의료 시스템 문제 및 사건·사고
	갈등	- 애월읍 봉성리 분묘시설 갈등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갈등 - 노사 및 주요 현안 갈등 심화
	대통령	- 제2공항 갈등, 대통령 해결 촉구 - 12·3 계엄 사태와 지방정부 대응 -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 안전사고 -
	학생	- 제2공항 갈등, 대통령 해결 촉구 - 12·3 계엄 사태와 지방정부 대응 -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 안전사고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9월 4일~9월 1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94건임
 - 정치·행정 분야 406건, 경제·관광 162건, 지역·사회 326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오영훈, 토론회, 기초자치단체, 지하수, 축제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 무산 ·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됨.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후 최소 1년의 준비 기간 필요'라는 입장과 행정구역 논란 등을 고려하여, 도입 목표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오 지사는 1호 공약 무산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임기 내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향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구역 재논의를 위한 추가 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업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	---

	오영훈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협력 강화 · '2025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퍼스타'를 개최하여 UAM, 드론, 우주산업 비전을 제시함. 영국의 버티포트 개발사 스카이포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화시스템의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만나 AI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 제주의 강점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 추진함 -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 ·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여 정부 목표보다 15년 앞당긴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국제사회에 발표함.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6만 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등 기후위기를 기후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항공편 증편 등 지역사회 공헌을 요구하며 증산 허용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공편 확대를 증산 허용의 주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도민 이익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함
정치·행정	토론회	- 중산간 개발과 새로운 관광 모델 · 제주도의회 주최로 '제주 중산간 개발 실태 점검과 제주형 관광개발모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됨. 랜드마크 중심에서 도시 전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특정 관광지가 아닌 제주 도시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옴 · 토론회에서 중산간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정이 명확한 개발 규제 원칙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관광객 수에 연연하기보다 관광객과 도민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 ·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됨. 용역 결과, 공영버스, 하수 및 환경시설을 공단화할 경우 연간 약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내용이 발표됨.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 · 공청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기존 인력의 고용 조건, 처우, 임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됨. 노동자들은 공단으로의 이직 시 신분적 차별 없는 임금체계와 동일한 근로조건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 토론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등 제주의 고용 여건을 고려한 '노동전환 조례', '

정치·행정	토론회	전환 기본 조례', '전환 기금 설치 조례' 등 3종 패키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만큼 제주의 현실을 반영한 실천력 있는 조례 마련을 촉구함
	기초자치단체	- 2026년 7월 도입 공식 무산 · 오영훈 지사가 2026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되었음을 발표함.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후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행정구역 논란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027년 이후로 연기함 · 오 지사는 자신의 1호 공약 철회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면서도, 국정 과제에 반영된 만큼 임기 내 추진 의사를 재확인함.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 맞춰 시행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실시를 희망함 - 계획 무산의 주요 배경과 원인 ·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계획 무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김한규 국회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와 오영훈 지사의 3개 기초시 구상 간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주민투표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요구해 옴 ·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타로 작용함. 해당 조사에서 2개 기초시 선호도가 높게 나오면서 3개 기초시를 추진하던 도정의 동력이 크게 상실됨.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기 공백도 사업 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힘 - 도입 무산에 따른 후속 과제 · 도입은 무산되었으나, 제주도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조직과 관련 예산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임. 조직 축소나 예산의 불용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행정구역 논의 등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 지사의 무능과 독선을 비판하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함. 행정시장 권한의 대폭 위임, 과대·과소 동 통폐합 등 실질적인 대안 추진을 요구하며 오 지사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섬
	지하수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재추진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재추진함. 아시아나항공 등과의 기업 결합에 따른 기내용 생수 수요 증가를 이유로, 현행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증량을 제주도에 요청함 · 제주도의회회가 9월 임시회에서 증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12일 함께 심의할 예정이며, 도의회의 최종 결정에 도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정치·행정	지하수	- '공수' 원칙을 둘러싼 찬반 갈등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하수를 도민의 공공재로 보는 '공수(公水)' 원칙을 내세우며 증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사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지하수 상품화와 사유화 확대를 경계하며, 제주도의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일부 도의원들도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제주도가 지하수 보전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기업의 증산을 허용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반면 제주도정은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는 입장을 보임 - 14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란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2011년부터 이번이 6번째로, 14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란임. 과거 5차례의 시도는 도의회 상임위 부결, 본회의 상정 보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부결 등으로 모두 무산된 바 있음 · 과거 제주도의회는 '도민적 동의 없는 사기업 영리를 위한 증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2013년과 2017년에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최종 무산되는 등 공수 원칙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짐
	축제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추진 · 제주도가 도내 모든 행사와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친환경 축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 축제 기획 단계부터 1회용품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 ·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적용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로 확대할 방침임. 2024년부터 시행한 다회용기 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약 50톤의 폐기물 감량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축제 개최 ·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기리고 유적의 가치를 알리는 '항파두리 역사문화제'가 9월 13일 개최됨. 성읍리 취타대 길트임, 토성 걷기, 탐라무예단 공연 등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함 · '조천리 용천수 역사문화축제'가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연복정과 조천진성 일원에서 개최됨.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용천수 물길을 따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함 - 제주시, 원도심 축제 활성화 · 제15회 '산지천축제'가 9월 12일부터 3일간 '변화의 물결, 새로운 산지천'을 주제로 산지천 일원에서 개최됨. 지역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여 칠머리당영등굿 시현, 청소년 댄스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김완근 제주시장이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주레저힐링축제'를 칭찬하며, 향후 모든 축제는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시기가 비슷한 축제는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함

- 경제 · 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여행, 글로벌, 청년, 일본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 · 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 · 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음식 관심 · 제주관광공사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소셜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3개국 모두 '흑돼지'를 인기 음식으로 주목함. 일본은 K-콘텐츠를 통해, 대만은 체험형 카페와 연계하여, 싱가포르는 여행 후기에서 흑돼지를 주로 언급하며 높은 관심을 보임 · 대만 관광객은 '커피'를 최다 언급 음식으로 꼽았고 긍정 반응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에서는 '전복'에 대한 언급이 상승세를 보이고 '제주 맥주' 등 지역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 실제 관광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됨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정부가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기존에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적용된 유일한 지역이었던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단체관광객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올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27만여 명 중 중국인이 94만여 명에 달하는 등 그간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려온 제주도는 국내선 이용을 유도하고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 중임 - 관광시장 질서 확립 위한 단속 강화 · 가을철 관광 성수기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
-------	-----	--

경제·관광	관광객	됨.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 ·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이미 불법유상운송 6건, 무등록 여행업 2건 등을 적발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임
	여행	- 가을 제주, 맞춤형 여행 콘텐츠 · 제주관광공사가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가을'을 주제로 7가지 취향 맞춤형 여행 콘텐츠를 발표함. 문화, 웰니스, 자연, 쇼핑, 미식, 어드벤처, 매력탐방 등 테마별 여행지를 추천하여 여행자 선택의 폭을 넓힘 · 주요 콘텐츠로는 제주해녀축제 등 문화 축제 탐방, 새별오름 등에서 즐기는 억새 감상,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웰니스 활동, 이호테우해변-도두봉 코스 러닝, 그리고 웨딩 스냅 촬영 등이 있음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최선호지 제주 ·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제주가 향후 반려견 동반 여행 희망 지역 및 3년 이내 실제 방문지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 여행지임이 확인됨 ·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친화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함. 업계는 관광 유관기관, 검역기관, 항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추석 황금연휴 제주행 교통 대란 · 최장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를 오가는 교통편 예약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름. 연휴 초반 제주 도착 항공편과 연휴 후반 제주 출발 항공편 대부분이 만석이며, 목포-제주 배편 등은 이미 6개월 전에 매진됨 · 교통 대란 해소를 위해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노선 등에 임시편 18편을 투입해 3,400여 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표를 구하지 못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됨
	글로벌	-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개최 ·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으로 만드는 제주경제'를 주제로 '2025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이 개최됨. 국내외 제주 출신 상공인 250여 명이 참석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기조강연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AI 혁신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함.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마트 관광, AI 모델 개발, 스마트 농업 등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제시됨 - 제주 농산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 제주시농협의 수출 전용 브랜드 '제즈머라이즈(Jesmerize)'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섬. '제주산 농산물로 세계인을 매료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재 미국,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브랜드를 출원함 · 동남아 시장 거점인 싱가포르에서 시내버스 광고를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섬. 광고에는 마스코트 '굴노루' 캐릭터를 처음 선보였으며, 향후 키위, 만감류 등 패밀리 캐릭터로 확대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임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제주서 성료 · 제주에서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이번 회의에서는 AI,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제주

경제·관광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둠 · '제주 이니셔티브'는 APEC 회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업 및 혁신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청년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 · 제주도가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함.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5만 원,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임 · 2023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현재 44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96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8월 고용시장, 20대 취업자 증가 ·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20대(20~29세) 취업자 수는 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10.1%) 증가하며 60세 이상 고령층과 함께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 · 반면, 30·40·50대 취업자는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40대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으나, 건설업 고용 부진과 상용직 근로자 감소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주도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최 ·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머니업! 청년금융클래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금융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테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여 명이 참여함 · 전문가의 자산관리 강연과 함께 월급 재구성 시뮬레이터, 재테크 MBTI 등 다양한 체험형 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음. 오영훈 지사는 이를 '청년주권도시 제주의 소중한 시작'이라고 평가함
	일본	- 제주-일본 간 하늘길 확대 ·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음. 최근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이 제주를 방문해 양 공항 및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노선 재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 · 기존에 운항 중인 제주-도쿄 노선은 10월 말부터 주 4회로 증편될 예정이며, 구마모토, 오키나와 등 일본 지방도시와 제주를 잇는 전세기 운항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일본 관광객 유치에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일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항공노선 확대에 발맞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 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 참가해 제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임 · 현지 여행업계 대상 세일즈,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과 더불어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감귤·동백 등 제주의 겨울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 대형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임

경제·관광	일본	- 일본인의 제주 미식 높은 관심 · 해외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일본 관광객들은 제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이돌이나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흑돼지' 관련 언급이 K-콘텐츠를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며 높은 파급력을 보임 · '흑돼지' 외에도 '전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으며, '케이크'는 '여행' 키워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됨. '제주 맥주' 등 지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 이를 활용한 맞춤형 미식 관광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밀입국(보트/중국인/중국), 병원, 갈등, 대통령, 학생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밀입국(보트/중국인/중국)	- 중국인 고무보트 집단 밀입국 ·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서 출발한 90마력 고무보트가 약 460km를 향해 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사건 발생. 현장에서 구명조끼 6벌, 중국산 비상식량, 다량의 연료통 등이 발견되어 관계 당국이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함 · 탑승 추정 인원 6명 중 일부가 잇따라 검거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사례도 발생.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진술했으며,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해상 경계 허점 문제도 제기됨
-------	----------------	---

지역·사회	밀입국(보트/중국인/중국)	- 제주 내 중국인 연루 범죄 발생 · 카지노 도박 빚 8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 동포를 호텔 객실에 감금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됨.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잠적하자 호텔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폭행하고 영업하지 않는 홀덤편 매장 내에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30대 남성 등이 체포됨. 피의자 중 한 명은 중국인으로, 동업 관계인 한국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됨
	병원	- 제주대학교병원의 역량 강화 · 정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44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함. 이를 통해 뇌혈관 전용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을 개선하고 로봇수술장비 등 최신 의료장비 72대를 확충하여 중증진료 역량을 높일 계획임 · '권역모자의료센터'로도 지정되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100억 원 규모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예산을 확보해 아열대 감염병 등 제주 특화 보건의료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완결형 의료기관으로 도약 중임 - 서귀포의료원의 경영난 심화 · 만성적인 적자 경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함. 연간 운영비 731억 원 중 국·도비 지원은 11.6%에 불과하며, 나머지 88.4%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에 집중해 재정 압박이 가중됨 · 재정난으로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의료진 이탈 우려가 커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유지가 위태로워질 경우, 제주 산남지역의 응급·중증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임 - 의료 시스템 문제 및 사건·사고 ·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는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됨. 환자의 활력징후가 악화하는 동안 의료진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처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제주지역의 소아·청소년 인구 1천 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의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소아 진료 접근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갈등	- 애월읍 봉성리 분노시설 갈등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됨. 반대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일부 임원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함 · 사업주와의 상생협약 안건을 다룬 임시총회 표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마을 이장이 사업조합의 설립자라는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며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됨

	갈등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갈등 ·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헌장이 4·3의 역사적 교훈을 담고 모든 존재의 공존을 지향한다며 즉각적인 선포를 촉구함 · 반대 측은 성 소수자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강하게 반발함. 이에 제주도는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찬성 측은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상황임 - 노사 및 주요 현안 갈등 심화 · 신화월드 카지노 노조가 사측의 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함. 노조는 영업이익이 5배 급증했음에도 사측이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실질적 임금 동결이라며, 고강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함. 지하수는 공공자원이며 특정 기업의 사유화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하수 공수관리 체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지역·사회	대통령	- 제2공항 갈등, 대통령 해결 촉구 · 제2공항 반대 단체가 "10년 묵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과거 정부의 부실 용역과 정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반복 등은 현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주장함 · 대통령실 면담 결과, 대통령실이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갈등 해법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제주도가 도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함 - 12·3 계엄 사태와 지방정부 대응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오영훈 지사가 도청을 폐쇄했다는 의혹을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비판 논평을 발표함. 계엄에 반대하며 청사를 지킨 타 지자체와 대조된다며, 불법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함 · 오영훈 지사는 도청 폐쇄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이는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당시 경기도에서 제주로 이동 중이었으며, 도착 후 비서실장 등과 통화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 -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 안전사고 · 서귀포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등부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선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 선수 보호자 측은 1라운드 다운 후 코치가 2라운드 출전을 강행했고, 응급 후송 과정에서 사설 구급차가 길을 해매는 등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라고 주장함. 이에 분노한 선수의 아버지가 경기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함

지역·사회	학생	- 제주 학교폭력 증가세 심각 · 제주 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검거 인원이 매년 240명에 달하며 심각한 수준을 보임.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2021년 160명에서 2022년 247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117명이 검거됨 · 폭행·상해뿐 아니라 성폭력, 모욕·명예훼손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 전국적으로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크게 늘어 지난해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제주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2.8%로 전국 평균(2.1%)보다 높게 나타남 - 학생 대상 안전 위협 사건 발생 ·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하교 중인 초등학생에게 "재밋는 구경하는 알바할래?"라고 접근하며 차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발생. 피해 학생이 차량 번호를 기억해 신속히 신고하면서 범인이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됨 · 한라산 관음사 등산 코스에서 10대 남학생이 말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됨. 또한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2학년 학생 명렬표와 일부 수행평가 점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보안 사고도 발생함 - 학생 교육 환경의 변화와 과제 · 폐교 위기였던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이 마을의 '학교 살리기 사업' 성공으로 학생 수가 60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본교 승격을 추진 중임. 주거 지원과 시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룬 긍정적 변화로 평가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주지역 지원자가 '황금돼지띠' 학령인구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7,513명으로 집계됨. 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졸업 후 타 지역 취업을 희망하거나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